붙임 · 온라인 개인정보 안전수집 지원사업

가장 쉬운 입구가
가장 위험한 입구가 되었습니다

행사 신청서, 만족도 조사, 교육 접수. 국민의 정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온라인 신청·설문입니다.
2026년, 유출은 바로 이 첫 단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관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부설 개인정보보호진흥원 | 서비스 제공 ㈜와이즈인컴퍼니 (사회공헌 무상 제공)

2026. 11. 3. **대통령 부부 등 168명의 여권번호까지 담긴 명단, 외부 사이트에서 5개월간 노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파일 하나가 검증되지 않은 외부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동아일보 2026. 11. 3.)

2026 CASES
신청·접수 단계에서 무너지는 개인정보

2026. 6.
정부 창업 오디션 합격자 5,000명 정보 유출
대국민 온라인 공모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합격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26. 6. 18.

2026. 10.
청와대 국민 의견 3만 8,741건, 직원 개인 구글 계정으로 접수
기관 계정도, 보안 검증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다운로드·공유 이력은 "파기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서면답변이 나왔습니다.
엔지오프레스 2026. 10. 29.

2026. 10.
개인정보 교육 신청마저 보안인증 없는 구글폼으로
공공 위탁 교육사업의 참가 신청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외부 설문도구로 접수되었습니다.
전자신문 2026. 10. 15.

2026. 10.
학교 교육용 구글 계정 11만여 개 탈취
계정 하나가 뚫리면 그 계정으로 받은 모든 신청·설문 응답이 함께 열립니다.
뉴시스 2026. 10. 22.

772만 건 2022. 5.~2026. 5.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분 128건의 유출 규모. 이 중 **3건 중 2건은 권한 설정 오류·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부 설문도구의 공개 설정 오류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THE RULE
공공기관은 '검증된 서비스'만 써야 합니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4 ① (국가정보원, 2026. 5. 1.)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각 부처 사이버보안 지침에도 같은 조항이 있으며,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11701 문항으로 확인합니다.

2026 국정감사 · 정무위원회 (10. 13.)

"보안인증이 되지 않은 외부 도구로 건강·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까지 받고, 담당자가 인사이동하면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른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답변
- 보안이 확인되지 않는 수집 방식, 더 유의해 살필 것
- 관련 내용 **평가 반영**, 관계 부처와 협의
- 위탁한 기관에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
- 개인정보 유출에 **기관장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

THE GAP
그러나 현장은 아직 무료 폼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 계정의 무료 폼
신청·설문을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운영해, 계정이 탈취되면 응답 전체가 노출됩니다.

낮은 보안인증 인식
사용 중인 도구가 CSAP 인증·「도입 가능 목록」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망 구축까지의 공백
기관 차원의 수집 체계가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국민의 정보는 쌓입니다.

사업 취지

안전망이 갖춰질 때까지, 국민의 정보가 들어오는 첫 단계를 보안인증 서비스로 지키겠습니다.

※ 사례는 공개 보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를 요약한 것이며, 출처 기사는 다음 쪽 「관련 보도」에 정리했습니다. 조문 강조 표시는 작성자가 추가했습니다.

VERIFIED

국가가 검증한 보안 기준을 통과한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인증	국가정보원	데이터 주권
CSAP	**도입 가능 목록**	**국내 저장·관리**
CSAP-2024-051호 (SaaS 표준) 유효기간 ~ 2029. 9. 24.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도입 가능목록 등재 (연번 102)	국내 정보시스템 저장 국내 인력 관리 (목록 등재 기준)

FEATURES

만들고, 받고, 지키고, 분석까지 한 곳에서

01 만들기
설문·신청서를 쉽게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설문, 행사 신청, 교육 접수 양식을 만들고 익명·개인 링크로 배포합니다.

02 지키기
응답은 암호화해 보관
수집 정보는 암호화·접근통제 하에 처리·보관하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설문마다 SURE MARK로 안내합니다.

03 관리하기
기관 계정·서브아이디
개인 계정이 아닌 기관 계정 아래 담당자별 서브아이디로 운영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응답은 기관에 남습니다.

04 분석하기
분석·보고서까지 자동
실시간 응답 현황, 통계 분석과 차트, HWP·PPT·Word 보고서 다운로드까지. 조사 업무 시간을 1/5로 줄입니다.

REFERENCES

이미 공공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의정부시 · 천안시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천안도시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 서울관광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투자진흥재단 · 창원청년비전센터

KOTRA 보안부서 지침으로 본사·지역본부의 구글폼·네이버폼을 「도입 가능 목록」 서비스로 전환, 10개 이상 부서·사업과 외주 사업까지 일원화 | **의정부시** 민원 만족도 조사 자동화로 연간 조사 비용 8천만 원 → 1천만 원

IMPACT

무상 지원이 만드는 변화

계정 탈취 고리를 끊습니다
한 사람의 계정 탈취가 전체 응답 유출로 번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받습니다
공개 설정 실수, PC에 남는 사본, 방치되는 응답을 줄입니다.

사고 전에 대비합니다
안전망 구축 전 공백을 메우고, 지침·실태평가에도 대응합니다.

PROGRAM

무상 제공 안내

제공 대상	① 국가·공공기관 ② 국회(국회사무처 등) ③ 언론사 ④ 주요 협·단체(회원사 100개 이상)
제공 내용	**1기관 1계정, 설문·신청 무제한** · 기존 신청서·설문 이전 지원
제공 기간	국회·언론사 **기간 제한 없음** | 주요 협·단체 **1년** 후 갱신 협의 | 국가·공공기관 **1년** 후 갱신 협의
참여 조건	「개인정보보호 실천선언서」 서명 제출 → 재단 홈페이지에 실천선언 기관으로 게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게시 제외)
표기 사항	설문·신청서에 **SURE MARK**와 **"Powered by ㈜와이즈인컴퍼니 · WiseON"** 표기
안전 조치	이용 약정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관제·사고조사 협조,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조항 포함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 실천선언서 서명 → 이용 약정 → 계정 개설 (공공기관은 무상 사용 접수 등 내부 절차에 따름)

PRESS

관련 보도

초유의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해킹 살벌한데 정부 보안엔 구멍 숭숭 동아일보 2026. 11. 3.
보안인증 없는 구글폼…개보위 사업에 쓰였다 전자신문 2026. 10. 15.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위중한 유출 '기관장에 책임' 정책브리핑 2026. 10. 1.
모두의창업 합격자 5000명 개인정보 유출 조선일보 2026. 6. 18.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72만건…담당자 징계 권고 단 2건 이데일리 2026. 10. 12.
6개 지역서 학교 구글 계정 11만개 해킹 뉴시스 2026. 10. 22.
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10. 16.
해킹도 아닌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한 서울시설공단 오마이뉴스 2026. 1. 23.

신청 · 문의

개인정보보호진흥원 유준희 실장
☎ 02-501-2906 | ✉ cs@kcf-korea.org

※ 본 사업은 ㈜와이즈인컴퍼니가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이 안내·운영하는 공익 지원사업입니다. CSAP 인증과 「도입 가능 목록」 등재는 정부의 특정 제품 권장을 뜻하지 않으며, 목록에는 다른 서비스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정보원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목록」(2026. 9. 30. 기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각 기사.